

16.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2

요한복음 8장 31절~32절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은 3단원 4과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2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거짓 신앙체계가 버려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오직 은혜에 의한, 오직 믿음에 의한,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을,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제로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어떻게 달릴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야 건물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순종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가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다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삶을 주님의 인도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이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알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시는 것이,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그 때 하나님을 전 존재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허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용자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잘 됐었는데요. 주 중에 앞에서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 은행에 책임까지는 얘기를 안 나눴나봐요. 그래가지고 은행 3군데를 들렀었는데 단위 농협에서 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농협중앙회에 있는 지점에서 교회로 용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류가 이미 보충돼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허가와 함께 바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이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끝까지 기도가 필요한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볼수록 이 일에서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중도금만 하더라도 5억6백5십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 한 2천만 정도하고 합해서 한 4천 만원 정도,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저쪽에 건물을 사기 위해서 현금한 금액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얼마큼 현금이 되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방안을 짰 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전날 바로 주일 2부 예배 이 시간까지 현금을 집계한 것이 5억 8백만 원, 너무 너무나 정확하게 금액까지도 아무도 인간이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맡으셔서 해 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양지에서 수서에 걸린 6차선 도로도 곧 뚫린 텐 데, 사통팔달 뚫리게 됩니다. 지금의 현시점에서도 여기에서 15분이면 갑니다. 안 막히면.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100만 원에 사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태까지 그 땅을 내놓은지가 3년 됐답니다. 왜 안 팔렸는지 아십니까? 거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돼 가지고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청에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답변은 일괄적이라 여태까지,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계약을 하기를,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 날 서둘러서 계약을 했거든요. 갔다오면 너무나 늦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여기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고요, 비행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는 빨리 끝내고 와야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급히 서둘러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날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도 분명히 주위로 다 알아봤지만 부동산을 통해서도 주위로도, 직접 담당자에게 알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청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청 담당자가 출장을 가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앞에 건축 사무소에 갔더니 그 소장님도 연수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대로는 하가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가 갔다 와서 계약을 했더라면 그거 안 했죠. 담당자 그런 얘기 듣고 하겠습니까? 안했죠. 그러면 우리 땅 못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그날도 없고 다 없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다음에 담당자가 잠을 못자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최근 들어와서 요 시점에서 그 적용을 이제 좀 더 누스하게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 허가가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로만 해도 6m 도로고 뚫렸으면 안 되는데 8m 도로로 이미 다 뚫려 있어 가지고 그 2m 차이로 허가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었나면 여태까지 허가 안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반대로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해 줬냐? 뭐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담당자가 우리 건물을 안쪽으로 좀 지어 달라, 그러면 앞쪽은 녹지로 놔두면 이 사이가 20m만 되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별개로 치게 된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 올 만큼, 우리는 뒤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넓은 땅에 그리고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뭘 말씀 드리려고 하나 하면 하나님께 다 운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까지도 이렇게 때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진행 돼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현금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기 우성상가 들어 온 거여 그것도 우리가 전혀 실수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갖게 되었는가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거기 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 사지 못합니다. 왜요 계약금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준비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보증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관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나홀은 거기서 풀로 쓰고 있는 정도고요 일반 교회 본당 못지않게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금 들어가 있는 돈까지 조금도 허비됨이 낭비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아무 때라도 팔아서 그러면 들어간 돈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아깝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거기 가서 예배드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른 것 둘째 치고 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되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떤 분들을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육관을 정확하게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교육관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해 가심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 교회적으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나 하면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가 버려지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추구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복음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머무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소원이 열망이 인격체이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전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 바 되라고 그랬는데, 여

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전심으로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요 열망으로서 그러한 자세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의도를 계시하시고 자신의 길들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영적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보는 것!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것! 영적인 분별력인데,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셔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셔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계시해 주셔야 알듯이, 영적인 분별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계시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럼 어떤 게 필요하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 과 전체를 요약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31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예요?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것 보더라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 잡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적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을 쭉 읽어 가시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에 “믿은”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진정한 믿음으로 저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했고, 주장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피상적이어서,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셨어요. 당연하겠지만.

이들이 저렇게 은혜 받는다고 즐기게 따라왔지만, 저들의 신앙이 피상적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게 32절이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한 편으로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혼동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지도자들,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받아들이고, 와서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가서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회당장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혼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저들이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 말을 붙잡으면’, ‘내 말에 매달리면’, ‘내 말에 집착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집착하면, 내 말을 붙들면 혹은 내 말에 매어달리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매달리고,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매어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혼동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또 회당에 가서 말씀 들을 때 혼동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 오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거기 가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무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어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씀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 교회의 리더들의 경우에도 말씀을 많이 강조하지만, 교리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은 지나치도록 강조하는 반면, 사실 강조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도록 강조하는 반면, 교회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을 위한 말씀의 중요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자신을 매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말씀에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은 것에 토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들은 것 중에서도 자기 취향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에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모은 그것이 신앙의 바탕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전혀 말씀에 매어달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들은 것 중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일부만이 그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매어달려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걸어야 합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레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그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자신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신대원에서 교회사 교수가 Dr.로버트 베이커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기록영화를 만드는 건데 마틴 루터의 생애에 대한 것을 독립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책자로 써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유럽전체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요, 모든 왕들도 다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영주들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초청합니다. 부름입니다. 거기에 카톨릭의 가장 유명한 변사까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생명은 우리가보장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섭니다. 그 당시의 세계의 권력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연합되어서 거기에 변사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르기 전에 한 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 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가 아는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다가 그 당시 카톨릭에서 이단이라고 정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하면 와서 변론해보라 당신 목숨은 보장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자마자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하고는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자마자 산채로 잡아가지고 장작에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쓴 책을 가지고서 “이게 네가 쓴 책이냐?”

“그렇다” 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여기 서있으니 나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거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자기가 유익한 것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

자기가 삶을 조종해야 될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전통,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면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일을 철저히 정의 내려서 그걸 다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상대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성경구절을 갔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뭔가 문제였냐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앙적인 전통, 자기개인의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편견으로 작용합니다. ‘편견’ 이게 편견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창경원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창경원이 없어져서 연희지 식물원 같은데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볼록거울, 그 앞에서면 어떻게 보입니까? 얼굴은 커지고 키는 짜리몽땅하게 보입니다. 오목거울을 보면요. 훌쩍하고 키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울을 보시면 나는 이렇게 있는데 그 거울에 비춰지면 거울이 이렇게 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절대로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굴곡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신앙적인 전통이나 자기개인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토대위에서 성경을 보는 한, 성경이 절대로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굴곡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에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근거로 나를 대적하느냐” 라고 말했더라면 저들은 성경책을 펴고 벌떼같이 달려왔을 거라고요. 그리고서 성경구절 하나하나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절들을 인용했을 것이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구절들을 인용했을 겁니다. 그 구절을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구절은 세상적인 일에서 쉬면서 육신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고 언약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고 그런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기위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고 하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이지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소나 자기 말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허리가 굽어서, 척추가 굽은 사람을 안식일 날 살려줬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지요. “아니, 소나 말이 더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더 중요하

냐?” 뭐가 더 중요하죠? 말하면 잔소리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소를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 하고, 그 20년이 가깝도록 그 많은 해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치료해 주는 것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대적하면서 자기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들은 그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전 세계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편견으로 작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굴곡’,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는 것은 이처럼 신앙적인 전통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신앙적인 전통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신앙적인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은 귀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신앙적인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귀한 전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전통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행악자요, 심지어 개라고 부른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전통을 의지해서, 전통에 내려오는 신앙적인 의식을 몇 가지 잘하는 게 신앙을 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모든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 전통, 심지어 과거의 열심까지도 배설물로 여김은 주님을 알기 위함이라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 시대에 살았더라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통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들마저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구했다라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그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주신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셨을 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분이 있고 저렇게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 리더십’이라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의 성공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항상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 보세요. 항상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한 번도 똑같은 길 가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법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통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습관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순종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새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에 신앙생활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우에도 그것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

하기보다 자기의 경험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불길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 치유받았구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분을 구하기보다 방법에 의존해서 옛날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법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무론 그 원칙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경배-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면 춤을 추면서 앞으로는 찬양할지 모릅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아, 지금은 이렇게 찬양을 잘 하던 분들도 아, 무슨 놈의 교회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나 그러면서 안 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의 성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가장 그 역사를 반대하는 무리가 누구인 줄 아세요? 너무 너무 안타까운거예요. 바로 그 전 시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지금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는데 벌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여태껏 경험한 것 나름대로 귀할지 모르지만 그것 내려놓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 내려놓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려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의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처럼 되어서 성경을 봐도 그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관점이. 아까 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서문에도 그게 있더라구요. 그게 뭐냐 하면,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너무나 새롭게 열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그게 다 있는데 왜 그것을 몰랐었는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물결선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성경 전체에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봤는지 모른다고. 수없이 많이 설교했는데.. 관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관점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올바로 보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을 봐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외워도 똑같은 말씀을 설교해도 자기가 아는 이해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관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것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편견으로 작용합니다. 편견이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마귀의 견고한 진, 사단이 사용하는 진, 요새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못 보게 만듭니다. 세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은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드린대로 마틴 루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 이렇게 하면 이 시대에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세미나를 자주 다녔잖아

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제 담임목사님이셨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사시거든요. 거기고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여 목사, 잘 배우고 가서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켜 봐’ 그러시더라구요.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한 번 떠 보라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마틴 루터든 요한 웨슬레든 누구든 뭐 윌리엄 부스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뭔가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취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이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적인 이해에 배치됐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다면 오는 사람 다 불러 모아와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럴것 같고 저기서 그 말 들을 때는 그럴것 같고 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얘기할 때 되돌아가는 그 시대에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 성경시대 나오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도들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시대를 위해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그 누구든, 존 헨스, 불에 타 죽은 존 헨스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비취졌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중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대로 다른 선택의 길이 없이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 앞에 자신을 걸 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그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때 그 실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때 실제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